

20대 개원 코앞인데...원구성 협상 제자리

D-14...더민주-새누리 국회의원 자리 놓고 신경전

운영·법사위 등 쟁점 상임위 입장차...지각 개원 우려

제20대 국회 개원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과거 지각 개원의 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는 쇠고기 파동 여파로 7월 11일이 돼서야 개원식이 열렸다. 2012년 19대 국회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에서 대립하면서 개원식은 7월 2일 치러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뒤 7일 안에 열어야 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첫 본회의 날로부터 3일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13대부터 19대까지 원 구성 기간은 평균 51.2일이나 걸렸다. 28년간 한 걸 같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지각 개

원한 셈이다.

20대 국회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당초 원내 제1당에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반대 급부로 새누리당이 법안의 출구인 법제사법위를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막상 협상에 착수하자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누리당이 122석, 더민주가 123석으로 의석 차가 거의 없는 데다 7명에 달하는 탈당파의 복당만 이뤄지면 지지가 뒤바뀌는 만큼 선불리 국회의장직을 넘겨 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국회의장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고 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 새누리당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로 운영위, 국방위, 예결위, 정보위를 꼽고 있다. 다만 경제와 금융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정부위 중에서 한 곳 정도는 야당과 나누는 게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있다.

현재 전체 1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8:8:2로 배분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더민주의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진동이 예상된다. 게다가 운영위, 법사위, 예산결산특위를 3대 주요 상임위로 꼽고 적어도 한 개 상임위는 넘겨받는다는 협상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양분해야 한다는 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1, 2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써 상임위 배분의 협상력을 높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장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최초 집회일은 5일이지만 5~6일이 휴일이어서 7일 열려야 한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고 원 구성은 오는 6월 14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신해철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을 갖고 처리 법안 등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

38명이 한몸으로 '일당백 원내전략'

국민의당, 상임위 초선-다선 파트너 체제

38석의 제3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와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의 자원을 총동원하고 전략적으로 배치,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 선도정당이 되기 위한 것이다.

15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회 배치와 관련, 초선과 다선 의원을 '파트너'로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체제를 전제로 할 때 소속 의원들이 13개(검치 상임위 상설특위 제외) 상임위별로 한 곳(2명)을 제외하고는 3명씩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신인의 패기와 중진의 경륜을 조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제1~6정책조정위원장은 각자 소속된 상임위의 간사를 맡아 한층 기민하게 원내 상황에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내대표실은 의원들 보좌진 구성을 위한 '인력 사무소'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원내대표실에서 구직중인 보좌진의 이력서를 접수, 이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초선 의원 사이에서 상임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보좌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

려한 조치다.

아직 의원실이 배정되지 않은 당선인들을 위한 '공부방 겸 사랑방'도 마련했다. 국회 의원회관 615호실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실 맞은편의 회의실에 컴퓨터와 책상, 테이블을 비치하고 당선인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주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와 목요일 원내정책회의에는 희망하는 의원이나 당선인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해 놓고 있다. 각종 현안과 법안에 대해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꾀하기 위해서다.

의원과 당선인들은 SNS 단체 토크방을 개설해 각종 공지사항을 전하고 당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소통하기도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이 토크방에서 당선인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는 후문이다.

김병진 원내대표비서실장은 "38명 당선인 전원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면서 한 몸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



더민주, 문화전당 방문 광주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13일 오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방한 '관심집중'

25일 '제주포럼'...28~29일 TK 방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는 25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 총장은 오는 25일부터 6일 동안 한국·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해 5월 '2015 세계교육포럼'(WEF)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한 지 1년 만이다.

4·13 총선 참패로 유력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상처를 입은 뒤 '반기문 대방문'이 재점화된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도 반 총장의 방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 총장은 오는 25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참석 후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26~27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30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유엔 DPI(공보국) NGO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떠난다.

특히 베이징에 열린 28~29일 반 총장의 일정이 주목된다. 15일 반 총장이 새누리당의 지역적 기반인 TK(대구·경북)를 방문할 것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은 더욱 술렁이고 있다. 반 총장은 29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 신청사를 방문하고 하회마을도 둘러볼 계획이다.

이번 방한에서는 '반기문 대방문'과 '총정 대방문'의 근거지인 충청권 방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광주 온 박원순 "역사의 부름에 앞장"

전남대 강연 등 2박3일 일정...대권 도전 시동

차기 대권 도전이 점쳐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광주 민심을 두드렸다. 2박3일간 일정과 발언들은 사실상 대권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과의 한 시간가량 비공개 만남은 서울시장 자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 시장은 13일 전남대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강연하고 광주시의원, 5월 단체 관계자, 청년상인 등을 차례로 만났다. 전남 5·18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스스로 '형제'라고 칭한 윤장현 광주시장,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등 각계 인사와의 만남을 섭렵했다. 시종일관 '광주정신', '광주사랑'을 강조하면서 야권 심장부 민심에 다가섰다.

박 시장은 전남대 강연에서 "뒤로 숨지 않겠다. 박관현 열사처럼, 윤상원 열사처럼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행동하겠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5·18 정신의 계승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청년들의 도전, 사명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정치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서울시장에 전념하겠다"던 그동안 입장에 견주어 파격적인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역 사회단체 원로, 더민주 고문 등을 비공개로 만난 것도 광주 내 입지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혔다. 박 시장은 전남 광주에서 열린 더민주 당선인 워크숍에도 격려 방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직 민생" 더민주 광주 워크숍 성료

"쓴소리 달게 듣고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광주에서 진행한 20대 총선 당선인 1박2일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호남 참패를 당한 이후 '반성과 성찰'을 기조로 호남의 민심을 보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광주에서 치러졌다. 전체 당선인 123명 중 115명이 참석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워크숍 해단식에서 "어제 우리는 호남의 쓴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반성하고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며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생활상 한 가지라도 도움을 주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앞으로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작은 내부 잘못부터 반성하고 거듭나겠다"며 "오직 민생, 이 구호로 더민주

가 앞으로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전날 워크숍 토론회 때 광주 시민의 쓴소리가 쏟아진 것에 대해 "정신이 변했 들었다. 의원들도 호남 민심을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심각하구나 느낌도 가졌다"며 "귀담아들은 내용을 의제화해서 하나씩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해단식 후 당선인들은 노무현정부 시절에 첫 삽을 떠 완공된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본 뒤 상경했다. 더민주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당선인 전원이 광주를 다시 방문토록 하고, 17일 전야제에는 지도부가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700㎡ 건물 2005㎡ ▶ 감평가 19억 5천 8백만원 최저가 13억 7천만원 1층수퍼 2~8층오피스텔 푸른길인근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 감평가 7억 9천 6백만원 최저가 7억 9천 6백만원 초등학교와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3층 연수원건물대지 1488㎡ 건물 2075㎡ ▶ 감평가 30억 6천 5백 최저가 7억 3백
-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 현 오리가공공장 대지 3,197㎡ 건물 2349㎡ ▶ 감평가 14억 최저가 6억 2천 7백만원
- ★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저수지 앞 전원주택단지 토지 554㎡ ▶ 감평가 1억 1천 최저가 6천 2백만원 지대높음 전망좋은
- ★ 전북 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2층 전원주택 대지 698㎡ 건물 230㎡ ▶ 감평가 1억 3천 1백만원 최저가 9천 1백만원 신축건물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 1,261㎡ ▶ 감평가 12억 1천 6백 최저가 8억 5천 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 광주 북구 신안동 1층상가 3개 2층 사무실 대지 210㎡ 건물 152㎡ ▶ 감평가 1억 8천 6백만원 최저가 1억 8천 6백만원 도로변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 감평가 915백만원 최저가 915백만원
-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호산리 면사무소 인근 담 473㎡ ▶ 감평가 29백만원 최저가 29백만원 계획관리지역 도로변
- ★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뒤편 창고 대지 350㎡ 건물 177㎡ ▶ 감평가 240백만원 최저가 240백만원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북구 운암동 대지 469㎡ 건물 1781㎡ 지하층~지상5층 대로변 준주거지역 ▶ 매매 15억 (용7억 4천 포함)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킨룸6개 (용4억 5천 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 옆 ▶ 매매 13억 5천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 매매 24억원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명지원 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 매매 40억 (보증금 2억 3천, 월2천 7백)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 422㎡ 6층 모텔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 매매 8억 (용4억 8천 추가 3억 3천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 222㎡ 건물 400㎡ 원룸15개 안집방3개 ▶ 매매 6억 3천 대출2억 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 ★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 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수익형 일반매매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 매매 5억 8천 (조정가)
-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 매매 2억 2천 (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텔유희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물 ▶ 매매 27억원 (용13억 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중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 매매 58억 (용28억 포함), 수익성 월8천정도로

20년경력 010-6211-4585 조해원 / 직원모집 초보환영 / 공인중개사 010-6838-6008 강천구